

# 죽산보 등 4대강 보 철거 용역 응찰업체 없어 3차례 유찰

### 권력 바뀌면 적폐 업체 찍힐까 우려에 조직적 거부 움직임 환경부 “조만간 재공고”...문 대통령 임기내 실행 어려울 듯

지난 2월 해체가 권고된 영산강 죽산보, 금강 세종보 등의 처리방안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용역이 3차례나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용역에 참여할 만한 연구기관이나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훗날 권력이 바뀌면 '적폐 회사'로 몰려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염려에 조직적으로 응찰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월 22일 '4대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 발표 직후인 같은 달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4대강 보 처리방안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했다. 이 용역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과 부작용 완화 대책 등을 세우는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보 철거를 위한 첫 단계다. 용역비는 25억원, 소요 기간은 22개월이다.

하지만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아 유찰됐다. 환경부는 다시 3월 19일~4월 2일 재공고, 4월 5~30일 긴급 재공고를 했지만 역시 응찰 기관은 없었다. 급기야 조달청은 지난 1일 환경부에 "4대강 보 처리 입찰을 더 이

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반력 통보했다. 계속되는 유찰에 환경부는 용역을 성사시키기 위해 엔지니어링 회사와 공공 연구기관, 학회 등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기관에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압력성 부탁까지 넣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환경부로부터 입찰 참여 요청을 받은 A사 관계자는 "정부 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렵지만 이 사업을 수행했다가 나중에 어떤 후환을 당할지 걱정이 더 컸다"며 "주요 엔지니어링 회사 오너들이 모여 '입찰에 들어가지 말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간부는 물론이고 실무자들도 '보 철거는 나중에 된서리 맞을 사업'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경쟁이 바뀐 뒤에 '적폐 회사'로 몰려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들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용역이 늦어지는 만큼 나머지 일정도 연기될 수밖에 없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죽산보 철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조만간 다시 용역 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달 중 다시 공고를 내 낙찰자가 결정돼도 2021년 3월해야 마스터플랜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6개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실시 계획 수립(12개월)을 고려하면 철거 공사는 이르면 2022년 9월에 착공할 수 있다. 현 정부 임기(2022년 5월)가 끝난 뒤다.

또 정부가 죽산보 해체 근거로 내놓은 경제성 평가에서 지하수 영향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알고 있는 각 기관들은 훗날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용역 응찰을 주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는 보를 철거할 때 지하수 수위가 떨어져 농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범위를 강 양쪽 500m씩으로 한정해서 물 대책 비용을 계산했다. 하지만 영산강은 3km가 넘게 떨어진 곳에서도 지하수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죽산보는 500m이내에 관정이 229개 있지만 하지만 3km까지 넓히면 3454개로 늘어남다는 분석이 있다.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을 했을 뿐 압력성 부탁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 2월 해체를 권고한 나주시 다시면 인근 영산강 죽산보. 환경부는 해체 공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3차례 공고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호남민심 '지지 견고'

### 적폐청산·호남 공약 등 '호응' 경제와 5·18진상규명 '실망' 여론조사 10명중 7명 '지지'

10일 취임 2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광주·전남 민심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경제 분야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호남 공약이 비교적 성실하게 지켜지고 있고, 호남 인맥도 과거 정부에 비해 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노사상생을 통해 현대자동차 광주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문 대통령의 공약에 지역민의 기대가 컸지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등 5·18의 진실 규명에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의 소리는 커져가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

로 지난 7~8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공개한 5월 2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응답률 6.6%)에 따르면 광주·전라지역의 응답자 69.1%는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전히 호남지역민 10명 중 7명은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주에 비해 7.7%포인트 하락한 수치여서 현 정부의 경제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강수훈 대변인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쌓인 적폐를 청산함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 불법과 불공정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왔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 경제 정책 성장률 둔화, 고용침사, 자영업 붕괴, 일자리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남은 3년 동안 개혁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소독격차와 지역격차 해소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기념 국조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가 문 대통령 미니어처가 들어간 '스노볼'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한국당 지지율 격차 오차범위로 줄어

리얼미터 여론조사 36.4%·34.8%...1.6%P 차 문대통령 지지도 47.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를 받아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7%포인트 하락한 3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주 간의 오름세를 마감하고 하락 반전했다.

민주당은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서울, 20대, 30대, 60대 이상 등 전 연령층,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면 한국당은 1.8%포인트 오른 34.8%로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지지율은 서울, 충청권, 호남, 부산·울산·경남, 30대, 40대, 중도층, 진보층에서 주로 상승했고, 경기·인천, 대구·경북,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

지율 격차가 1.6%포인트까지 축소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또한 정의당은 2.1%포인트 오른 8.3%, 바른미래당은 0.7%포인트 내린 4.5%,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내린 2.1%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0.3%포인트 늘어난 11.9%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하락한 47.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6%포인트 오른 48.6%로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1.3%포인트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세부 계층별로는 서울, 호남, 대구·경북, 20대, 30대, 중도층, 진보층에서 주로 하락했고, 충청권, 경기·인천, 40대, 50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 2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57.5%로, 긍정평가가(36.7%)보다 크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1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17 12 point

1 3 0 7 5 8 4 9 2  
116 10 point

2 4 6 3 7 1 2 8 0  
115 8 point

4 6 2 8 1 0 9 7 3  
113 6 point

2 7 0 2 1 4 2 0 2  
112 5 point

4 1 1 1 1 1 1 1 1 1  
111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11\* 3 point

##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창밖 풍경

전원주택전경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